# 전남도, '남도한바퀴' 초대박 흥행… 겨울까지 흐름 '쭉'

**남도한바퀴 이용객 전년比 49%↑**
**실내 위주·일몰일출 감상 등**
**겨울 히트 상품 28개 코스 출시**

전라남도는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가 올 들어 초대박 행진을 하는 가운데 남도의 일몰일출 명승지와 전통시장 겨울철 진미 탐방 등 겨울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남도한바퀴 이용객은 올들어 11월말 현재까지 1029회, 2만 54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4회, 1만 7115명)보다 이용객이 49%나 늘었다.

올해 남도한바퀴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일반코스 기준 9900원부터 2만 4900원까지로 다양하고 저렴한 30여 알찬 코스를 기획, 이용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탑승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관광지에 대한 지식과 흥미가 배가돼 이용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 점도 한몫 했다.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가 올 들어 초대박 행진을 하는 가운데 남도의 일몰일출 명승지와 전통시장 겨울철 진미 탐방 등 겨울상품을 출시했다. /전남도

여기에 전남에서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메가 이벤트와 연계한 특별코스를 운행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전남도는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 22개 시군을 순환하는 시티투어 '남도한바퀴' 겨울 히트 상품 28개 코스 상품을 출시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이 함께 따뜻한 남도를 즐기도록 순천 세계수석박물관, 보성 판소리성지, 함평 엑스포공원 등 실내 위주 코스로 구성했다.

또한 연말연시 일출일몰을 감상할 목포구등대, 겨울 포구와 낭만을 만끽할 광양 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 코스와 고흥 동강5일장, 함평 천지 전통시장 등 제철 진미를 느낄 지역 5일장 코스도 포함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는 저렴함 비용으로 다양한 여행지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코로나 이후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며 "앞으로도 남도한바퀴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 코스 운영 및 상품 예약은 남도한바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로 예약하면 된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 도로정비 종합평가 '최우수'

진도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2023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포장과 구조물 관리 ▲도로표지와 안전시설 등 도로 시설물 관리 ▲겨울철 제설 대비 월동대책 등 진도군의 다양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군은 여름철 잦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파손되고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해남군**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해남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내년 사업 대상자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8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안동시**

### 원스톱 인허가 처리 시스템 도입

안동시는 '원스톱 인허가 업무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만족도는 대폭 향상해나가고 있다.

시는 민원인 중심의 신속 정확한 원스톱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종합허가과를 신설하고 민원인 방문·상담이 용이한 종합민원실로 전진 배치했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인허가 부서가 분리돼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부서 간 장벽으로 상호교류가 어려워 민원 처리 지연 등 업무 효율성도 떨어졌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김해시**

###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세미나

김해시가 (사)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오는 1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2023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해시가 학회전문가들과의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의 구체화 방향을 제시하고 지리적 접근성, 확장가능성, 개발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김해시 일원이 입지의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하여 향후 국가정책 결정의 경쟁력을 높여 유치를 최종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해(경남)=장병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 산업은행 이전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해 국회 방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서한 전달**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국비 요청**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전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예결위 핵심 인사를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차질없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준 시장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표를 만나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고자 했으나,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박시장은 여당 원내대표, 예결위 위원장·양당 간사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났다. 먼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도 언급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부산의 숙원사업이자 부산이 물류와 금융 중심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 호남 최대규모 '광주역 창업밸리' 시동

**광주역 후면 유휴부지 매입 완료**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가 시동을 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국토부 부지 매입에 이어 최근(11월24일) 광주역 후면 유휴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의 부지 전체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는 등 사업 여건 변화로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사업 대안 마련과 지역 정치권의 협조 등에 힘입어 국토부, 코레일 등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매각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감정평가, 용도폐지, 총괄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4월 국토부 소유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번 코레일 부지는 1년 간의 실무협의 끝에 매입을 완료했다.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조감도(BASE). /광주광역시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은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출발했다.

공공투자 비용은 약 4400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어울림팩토리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광주=양수녕 기자

# 울산시, '명장 선정 기념식' 개최

**증서·명패·기술장려금 수여**

울산시는 4일 울산박물관에서 김두겸 시장, 김기환 시의회 의장, 기업 관계자, 올해 울산 명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울산 명장 선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올해 울산광역시명장 선정자 5명에 대한 증서 수여식, 대한민국명장과 국가품질명장 선정자(각 1명) 명장의 전당 등재식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기념식에서 울산광역시명장 선정자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 기술장려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2023년 울산광역시 명장'에는 ▲절삭가공 직종 HD현대중공업 김종규 기감 ▲선박건조 직종 현대미포조선 김창식 기사 ▲판금제관 직종 HD현대중공업 이규동 기원 ▲용접 직종 현대미포조선 하진용 기장 ▲소방설비 직종 HD현대중공업 김선우 기원 등 5명이 선정됐다.

올해 대한민국명장 16명(16개 직종) 중 HD현대일렉트릭 정규완 기감이 전기 직종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출범

**오는 8일 출범식 가져**

여수시가 오는 8일 여수문화홀에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박람회 추진을 본격화 한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20여 명의 임원진과 함께 1처 2본부 1실 8부 형태의 사무처로 구성되며 행사장 조성, 전시 연출, 행사 운영, 홍보, 수익사업,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발기인, 임원진, 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조직위의 성공적 첫발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행사는 권역별 여수의 섬 주민이 직접 참여해 섬과 섬을 잇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 세리머니와 비전 선포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념행사 후 창립총회에서는 섬박람회 개최시기 변경 및 기간연장, 민간위원장 임명, 제규정 제정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이에 따른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